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동진¹, 김송미^{2*}

¹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²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The Effects of Material Deprivation on Subjective Mental Health of Youth: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Dong-Jin Park¹, Song-Mi Kim^{2*}

¹Research Fellow, 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²Research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Myo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 2,041명의 응답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조절효과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의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 및 제도를 보다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청년, 물질적 박탈감, 주관적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 of material deprivation o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of you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model were analyzed using the response data of 2,041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2021 Youth Social and Economic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aterial deprivation of youth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s subjective mental health. Secon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effect of material deprivation o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of you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level of youth, it is necessary to not only strengthen public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the situation of material deprivation of youth in advance, but also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system by raising the level of social support.

Key Words : Youth, Material deprivation, Subjective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1. 서론

다수의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실제로 청년 다수가 주거 및 생활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취업을

한 청년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노동지위를 가짐으로써 근로를 해도 빈곤한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게다가 가족지원이 빈약하거나 가족부양을 부담하는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불리를 경험하고, 장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3].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취업하는 것 자체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취업을 했다 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NRF-2017S1A5B5A02025952)

*Corresponding Author : Song-Mi, Kim(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August 24, 2022

Revised Septem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었다. 이로 인해 당장은 경제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경력을 형성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생애과정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4-6].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신체화 반응들도 겪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우울,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이는 청년 빈곤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과 함께 정신건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 박탈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 박탈은 빈곤층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의미하며[9], 사회경제적 박탈 등으로도 일컫기도 한다. 박탈이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상대적 결핍상태와 결과를 포함하고, 개인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빈곤에 비해 그 유용성이 강조되어 왔다[10]. 물질적으로 박탈을 경험하는 계층에게는 신체 및 정신의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에서의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는 시기이라는 점에서 보다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첫 생애단계로서, 아동·청소년기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성인기로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2]. 정세정 외 [12]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빈곤한 상황 속에서 성장해오면서 가족 내분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등지에서 다양한 장벽과 불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성인이 된 현재의 삶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장기화된 취업준비, 실업 등으로 인해 주 소득원이 상실되는 것은 빈곤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는 물론이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서조차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와 학교에서의 공교육 및 사교육 등에서의 불리를 경험한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었다.

청년 집단은 20대에서부터 최근에는 30대 연령인 이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보고 있으며, 최근에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과 낮은 기술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시장이 이중화

되면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좌절되거나 연기되며,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등장하였다[3]. 청년에게 있어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개인의 정서를 안정시킴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긍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수준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주관적 정신건강은 의학적인 수단으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개인이 느끼는 미세한 정신상의 변화를 비롯하여 잠재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내므로,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환경에서는 개인이 갖는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여건이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14,15]. 즉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이려면 행복감을 보다 높게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개인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낄수록 우울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볼 때[16-18],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산, 소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세대부터 자녀세대까지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세습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19]. 그러나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완충시키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20,21].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타인들에게서 받는 관심, 인정, 사랑을 비롯하여 정보 혹은 물질적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22]. 그러므로 청년이 느끼는 물질적 박탈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3-25], 특히 가구소득 집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우울 수준의 격차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 또한 실직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지각하는 심리사회적 안녕감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7].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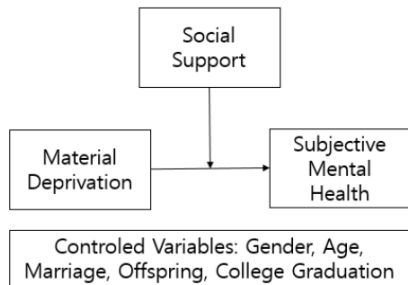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에 조사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2,041명을 조사하였다[28].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1 물질적 박탈감

물질적 박탈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TV를 가지

고 있지 않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로 총 9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578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는 보통 .6 이상일 경우에 양호하다고 판단하나, 최소기준으로 .5 이상인 경우에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므로[2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도 내적일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2 주관적 정신건강

주관적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찬을 느낀다”,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에 대한 해당여부를 묻는 것으로 총 5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97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다.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여부를 묻는 것으로 총 7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749로 나타났다.

2.2.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정하였는데, 성별(남=1, 여=0), 연령(만 나이), 결혼여부(결혼=1, 이혼, 사별, 미혼=0), 자녀존재여부(있음=1, 없음=0), 대학졸업여부(1=대학졸업, 0=재학, 휴학, 중퇴)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SPSS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첫째, 각 측정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7.0에서 Hayes[30]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4.1의 모델1을 사용하여 조절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할 때에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물질적 박탈감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평균중심화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 주관적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정규분포성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아래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보다 아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1]. 또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aterial Deprivation	Subjective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N	1,923	2,041	2,041
Mean	.48	15.74	5.86
SD	.89	5.20	1.55
Skewness	3.25	-.69	-.18
Kurtosis	16.00	-.18	3.36
	Material Deprivation	Subjective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Material Deprivation	1		
Subjective Mental Health	-.222***	1	
Social Support	-.171***	.183***	1

* p<.05, ** p<.01, *** p<.001

3.2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물질적 박탈감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이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8.307, p<.001). 독립변수인 물질적 박탈감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370, p<.001). 한편, 이 때 청년의 연령(B=-.107, p<.01), 결혼 여부(B=-.639, p<.05), 자녀존재여부(B=1.269, p<.05)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B=.452, p=.093)과 대학졸업여부(B=.170, p=.313)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안했을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에 주관적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deprivation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Step	Variables	B	S.E	t
1	Material Deprivation	-1.370	.145	-9.427***
	Gender	.452	.269	1.680
	Age	-.107	.035	-3.056**
	Marriage	-.639	.270	-2.369*
	Offspring	1.269	.628	2.020*
	College Graduation	.170	.169	1.008
F=18.307, R-squared=.069, p<.001				
2	Material Deprivation(a)	-1.011	.152	-6.637***
	Social Support(b)	.646	.088	7.336***
	a*b	.280	.077	3.649***
	Gender	.643	.264	2.437*
	Age	-.098	.034	-2.854**
	Marriage	-.563	.264	-2.092*
	Offspring	1.071	.615	1.740
College Graduation	.224	.165	1.354	
F=23.389, R-squared=.113, p<.001				

* p<.05, ** p<.01, *** p<.001

그 다음으로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이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F=23.389, p<.001$). 상호작용항에서는 물질적 박탈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B=.280, p<.001$), 사회적 지지가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때 청년의 성별($B=.643, p<.05$), 연령($B=-.098, p<.01$), 결혼여부($B=-.553, p<.05$)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존재여부($B=1.071, p=.082$), 대학졸업여부($B=.224, p=.176$)는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안했을 경우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simple regression line according to social support

variables	moderating effect	S.E	t	LLCI (b)	ULCI (b)	
Social Support	+1SD	-1.142	.157	-9.069***	-1.728	-1.113
	Mean	-1.011	.152	-6.637***	-1.310	-.712
	-1SD	-.725	.193	-3.753***	-1.103	-.34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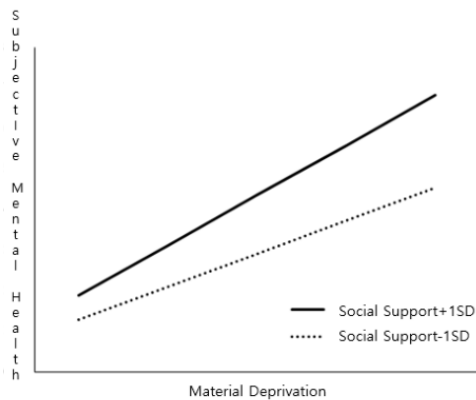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deprivation and subjective mental health

사회적 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값(조절변수의 $\pm 1SD$)에서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31]. 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이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따라 모든 조건에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의한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값 $\pm 1SD$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값을 살펴보았다. 물질적 박탈감이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높으면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평균값과 $\pm 1SD$ 수준에서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김주희 외[16], 손용진[17], 여유진[18]의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한세영과 한아름[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물질적 박탈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청년의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이 느끼는 물질적 박탈감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 박탈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최근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소득 관련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등의 정책이 만들어졌으며, 자산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노동자통장 등의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물질적 박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지원정책이 고용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어, 고용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청년지원정책에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청년들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가들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고용률 상승에만 치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3]. 또한 기존 사회보장 제도로 포괄하지 못

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도 존재하므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청년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취업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대상자 포괄성이 낮거나, 청년취업분야, 교육·훈련분야를 제외하고 청년들의 정책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것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청년정책들 중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편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의 물질적 박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청년의 물질적 박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년들의 전반적인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을 제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물질적 박탈감을 높게 느끼더라도,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김나예와 이덕남[23], 윤여주와 김지영[24], 김자영[2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가구소득 집단 간 우울에서의 격차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김진영[26]의 연구결과와 실직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신준섭과 이영분[27]의 연구결과와 같이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과 이 체계를 토대로 한 사회적 지지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빈곤에 처한 청년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와 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포함도 추구하고 있었다[34]. 이러한 청년들의 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및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

도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지, 가족지지, 친구지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청년이 느끼는 물질적 박탈감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 이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변인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사회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발달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종단적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본 연구결과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H. J. Shin. (2018). A study on the changing current situation in lonely death and its measures in Korean society,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4(2), 63-78.
DOI : 10.25277/KCPR.2018.14.2.63
- [2] G. S. Byun.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orkable Youth's Poverty Transition -Focused on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3), 257-279.
DOI : 10.20970/kasw.2012.64.3.011
- [3] S. M. Choi., H. E. Yu. & H. S. Kim. (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 of Youths in Poverty from a Bottom-Up Perspectiv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6(2), 32-58.
DOI : 10.46415/jss.2019.06.26.2.32
- [4] Shirahase, S. (2009). Age, change and poverty: coping with social transformation, *Global Asia*, 4(1), 40-44.
- [5] S. J. Kim. (2010). Youth Poverty and the Difficulti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6(3), 49-72.
- [6] S. J. Kim. & Y. Kim. (2013). A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Youth Poverty in Japan and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20(1), 223-247.
DOI : 10.17000/kspr.20.1.201303.223

- [7] S. M. Kim. & Y. S. Joo. (2021). Impact of economic loss due to COVID-19 on happiness among young adults in pover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inancial str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69, 33-60. DOI : 10.17997/SWRY.69.1.2
- [8] B. S. Jung. (2021). Complex Mediating Variables on the Influence of Poverty of Korean Youth on Their Depression, Complex Mediating Variables on the Influence of Poverty of Korean Youth on Their Depress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5), 1957-1969. DOI : 10.22143/HSS21.12.5.138
- [9] J. K. Lee. & R. H. Lee. (2016). Material Hardship and Alcohol Us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Material Hardship and Alcohol Us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552-565. DOI : 10.5392/JKCA.2016.16.07.552
- [10] T. H. Yoon. (2010).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e Status and Policy Task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8, 49-77.
- [11] R. G. Wilkinson.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NY: New Press.
- [12] S. J. Cheong., K. H. Choi. & B. R. Choi. (2021). Disadvantage Experiences and Vulnerable Youths' Liv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70, 293-334. DOI : 10.47042/ACSW.2021.02.70.293
- [13] J. E. Lee. & W. S. Shin. (2019). The Effects of Campus Forest Therapy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Emotional Stability and Positive Thinking,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33(6), 748-757. DOI : 10.13047/KJEE.2019.33.6.748
- [14] S. M. Choi., Y. S. Joo. & J. Y. Cho. (2020).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Low-income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pplying Alderfer's ERG Theory,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7(3), 82-110. DOI : 10.46415/jss.2020.09.27.3.82
- [15] Oshio, T., Nozaki, K., & Kobayashi, M.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 [16] J. H. Kim., J. W. You. & I. H. Song. (2015).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42-79. DOI : 10.15709/hswr.2015.35.3.42
- [17] Y. J. Son.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on : Focusing on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6), 3227-3238. DOI : 10.37727/jkdas.2018.20.6.3227
- [18] E. G. Yeo. (2020). The Effect of Material Deprivation on Depression: Focused on Effect by Life Cycle and Area of Depriv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60-84. DOI : 10.15709/hswr.2020.40.2.60
- [19] S. Y. Kim., K. E. Choi. & M. J. Park. (2020). Society with Class Barrier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Youth and Inequalities, Seoul: The Seoul Institute.
- [20] J. M. Bae. (2015). Theoretical Review abou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4), 49-70. DOI : 10.18398/kjlgas.2015.29.4.49
- [21] M. S. Lee. (2015).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Health, Social-support, and Future-expectation on Korean Young People's Subjective Happ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7), 179-199.
- [22] M. S. Kim. & S. H. Park. (2015).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go-resilience in Child Community Centers: Focusing on the Relative and Moderating Effect of Child Community Center Teacher's Suppor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2), 55-82. DOI : 10.15753/aje.2015.16.2.003
- [23] N. Y. Kim. & D. N. Lee. (2019).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1), 117-128. DOI : 10.22143/HSS21.10.1.9
- [24] Y. J. Yun. & J. Y. Kim. (2020).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Depression and Happiness among Adolescent Grou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6), 1-21. DOI : 10.21509/KJYS.2020.06.27.6.1
- [25] J. Y. Kim. (2021). Aging Anxiety Effects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1(6), 1055-1072. DOI : 10.31888/JKGS.2021.41.6.1055
- [26] J. Y. Kim. (2021).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Income and Depression: Social Support As an Amplifying Factor,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4(1), 25-46. DOI : 10.31693/KJPS.2021.03.44.1.25
- [27] J. S. Shin. & Y. B. Lee. (199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7, 241-269.

- [28] K. H. Kim. & J. H. Bae. (2021). 2021 Youth Socio-Economic Reality Survey: Basic Analysis Report (Research Report 21-R9-1),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9] B. S. Kang. (2002), Modern Statistics Analysis, Seoul :Trade Management Corp.
- [30]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ress.
- [31] R. B. Kline.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Y: The Guilford Press.
- [32] S. Y. Han. & A. R. Han. (2018). Influence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Happiness of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Academic presentation papers*, 2018(4), 212-213.
- [33] K. H. Kim., M. S. Yoo., K. S. Byun., J. H. Bae., M. J. Lee., J. W. Bae., S. Y. Cha., J. S. Kang., H. J. Lee., H. W. Kwon., S. H. Lee., M. K. Kim. & M. S. Park. (2020).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Young People and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Sejong: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34] S. H. Kim. (2019). Poor Female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 Rainbow of Crossing and Fit,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3(1), 117-150.
DOI : 10.22867/kaqsw.2019.13.1.117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20년 3월~2022년 2월 :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2022년 3월~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년복지
- E-Mail : wookana@hanmail.net

김 승 미(Song-Mi Kim)

[정회원]



- 2020년 3월 : 도시사(同志社)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7월~현재 : 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 E-Mail : matumism0730@gmail.com